



기독일보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음력 7월 25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1874호

“아프간 난민 문제, 성급한 인도주의 지양하고 신중해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이슬람’에 대한 경계 당부 “유럽, 무슬림으로 인해 ‘다문화 정책’ 실패 선언 이슬람, 전 세계 주요한 테러의 핵심이며 주인공 국제 사회가 만든 근거지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아프간 난민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주의, 보편적 인류애가 담보되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아프간이 미군 철수 후에 대훈련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탈레반에 의하여 수도 카불이 점령당한 후, 아프간을 떠나는 난민들은 주(週)마다 수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며 “카불이 점령당한 후 불과 약 10일 사이에 55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난민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아프간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난민을 많이 만든 나라의 오명(汚名)을 갖고 있다. 약 2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나라이다. 어찌 보면 대단히 불행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세계 각 국은 인도적 지원에서 서로가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절대 그렇지 못하다”며 “그것은 2015년 발생한 시리아 난민의 전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리아는 670만 명의 난민을 양산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만들 어낸 무책임한 국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2015년 당시만 해도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시리아의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이슬람이라는 강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무슬림들은 세

계 여러 곳에서 범죄와 살상을 저질렀다”며 “그것을 경험한 여러 나라가 이번 아프간 난민 사태에서는 절대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에 무슬림으로 인해, 그렇게도 애심차게 진행하던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했다”며 “이슬람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에 대한 침착과 결집이 강해, 전 세계에 흩어진다 해도 그들의 폭력적 신념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아프간을 탈출하는 사람들 대부분도 탈레반에 싫어져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는 것이지, 그들의 종교를 버리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지난 27일 아프간 난민 390여 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 협력자와 가족으로 알려진다. 그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교계에서도 이를 아프간 난민을 받아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통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19장 33-34절”이라며 아래와 같이 인용했다.

‘거유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유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유민이 되었느니라’

언론회는 “이 말씀처럼 거유민(난민)을 받아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스라엘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나, 엄청난 노역(勞役)을 하면서도 애굽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슬람은 다르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주요한 테러의 핵심이며 주인공으로 세계를 경악케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것도 지난 2001년 이슬람에 의한 9·11테러 때문”이라며 “이때 무고한 미국 사람 3,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이 이 가진 종교 특성 때문이다. 이번에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도 그들이 신봉하는 ‘사리아법’이 우선한다고 친명했다”고 했다.

또 “이슬람은 다른 종교에게 호혜(互惠)를 베풀지 않는다. 물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만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코란에도 폭력은 정당화하고(코란 2장 216절, 동 4장 89절 등) 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코란 8장 55절, 동 8장 39절 등)”며 “그런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과 동거하는 것은 많은 불편과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슬람은 이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자기 국가가 싫어서 그 고통스런 난민의 길에 나선 그들이 한없이 안타깝고 불행하게 느껴지지만, 지금은 당장 어려움이 있어 남의 신세를 지다가도,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되돌아가서 은혜를 베풀 사람들을 해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슬림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려면, 자신들의 폭력과 살인과 비인권의 종교적 신념을 버려야 한다”며 “그리고



합의문 서명 뒤 약수하는 與윤호중·野김기현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약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별도 협의체에서 재논의한 뒤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뉴시스

▶관련기사2면

그리면서 “우리나라도 이슬람교 사람들을 국내에 들어오도록 무조건 받아들여 보다는, 국제 사회가 노력해 아프간 난민만의 근거지를 만들어 주고, 그곳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아프간 난민 문제, 안타깝고 복잡하지만, 성급하고 졸속의 인도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폭력과 살인과 비인권의 종교적 신념을 버려야 한다”며 “그리고

인류애의 보편적인 종교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아프간에는 1·2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구출하는 것도 급한 일”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아프간 난민 문제, 안타깝고 복잡하지만, 성급하고 졸속의 인도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폭력과 살인과 비인권의 종교적 신념을 버려야 한다”며 “그리고

이슬람 난민의 유입이 결코 성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아프간의 탈레반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이었다”며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어려움을 만난 난민들을 위해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WEA, 역사 깊은 건전한 복음적 국제 연합기구”

김성태·박용규·이한수 총신대 신대원 명예교수, 입장 발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들인 김성태(선교학)·박용규(교회사)·이한수(신약신학) 교수가 31일자로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1846년 설립된 175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장로교회(PCA) 교단과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가 정회원으로 있는

다는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WEA와의 교류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2021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의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난 104회 WEA에 대한 결정을 준수하기로 한

2021년 총회 신학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들은 “복음주의자들과 가톨릭 함께(ECT, 1994-현재),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로마 가톨릭 대회(ERCDOM, 1977-1984), 루터언맹과 가톨릭의 칭의에 대한 공동선언(JDD) 등은 WEA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특히 “WEA에 가입한 적이 없는 우리 총회(예장 합동)가 만약 WEA와 교류 단절을 결정한다면 국내외적인 고립은 물론 이는 곧 교단이 ICC(국제기독교협의회)가 결었던 것과 유사한 극단적인 신근본주의 분리주의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이들은 “WEA의 7개 신조의 신앙고백과 그 뿌리가 되는 1846년 복음주의연맹의 9개 신조, WEA 회장 토마스 쉬르마커의 신학적 입장, 2021년 미국 PCA 증경서기 타일리 목사의 WEA에 대한 PCA의 입장 편지, 2019년 104회 총회 결의, 2017년 이후 WEA에 대한 총회 신학부의 수년간의 결의, 2021년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회의 WEA 연구보고서와 지난 수년간의 여러 교수의 WEA 연구논문, 2021년 칼빈신학교 교수회의 WEA 연구보고서와 최근 합동신학대학원 이승구 교수의 WEA 논문을 보더라도 WEA와의 교류 단절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이제 우리 총회는 더 이상 WEA 교류 단절 여부로 인한 소모전을 중단해야 한다. 금년 106회 총회에서 신학전문위원회 같은 또 다른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암으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 이는 교단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총회는 WEA와의 교류 단절과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이 세상과 수많은 교회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총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별장도 좋고, 투자도 좋고, 물려주기는 더 좋은

CHESTERTONS
SOKCHO

주택 해당無
주택 종부세 해당無

공실, 관리 걱정無
전금 대출 최대70%

양도세 중과無
9월 준공 예정

속초를 사고, 속초에 산다!!

**비울때는 수익을 가져가는
나만의 별장을 소유하세요**

체스터顿스 속초 Highlight 4

Highlight 1
강원도 내 최대 규모 4개동 총 968실

Highlight 2
세계적인 브랜드 체스터顿스 위탁운영

Highlight 3
온천 수영장, 사우나 등 20가지 부대시설

Highlight 4
낮은 분양가에 특급호텔 이상의 서비스

시행사 HUMAN STAY
신탁사 모금원외탁
지하 3층·지상 12층 | 4개동 총 968실

1899-7088

* 사진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일부 대상물을 임의로 표시하여 실제 크기 및 거리를과 차이가 있으며
건물 주변의 시설 및 조경 등의 표현은 상상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